

# 기록의 발견과 이해를 위한 온라인 검색가이드 연구\*

- 국립보존기록관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Online Research Guides for User Support to Find and Understand Archival Records in National Archives

설 문 원 (Moon-Won Seol)\*\*

### 목 차

|                     |               |
|---------------------|---------------|
| 1. 서론               | 4. 종합 분석과 시사점 |
| 2. 기록 검색가이드의 개념과 의의 | 4.1 분석 기준     |
| 2.1 개념과 특징          | 4.2 접근성       |
| 2.2 검색가이드의 필요성과 역할  | 4.3 포괄성       |
| 3. 사례 분석            | 4.4 체계성과 일관성  |
| 3.1 영국 TNA          | 4.5 연계성       |
| 3.2 미국 NARA         | 4.6 시사점       |
| 3.3 호주 NAA          | 5. 맺음말        |
| 3.4 국가기록원           |               |

### <초 록>

이 연구는 이용자가 기록을 쉽게 '발견'하고,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검색가이드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 호주, 우리나라 국립보존기록관들의 검색가이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가이드의 명칭과 접근 방식, 개발 대상과 범위, 구조와 연계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다시 접근성, 다양성, 체계성, 일관성,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이 검색가이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록 검색가이드, 온라인 검색가이드, 검색도구, 기록서비스, 국가기록원, 영국 국립보존기록관, 미국 국립기록관리처, 호주 국립보존기록관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online research guid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four countries including the UK, the USA, Australia, and Korea. It also analyzes the name and accessibility, subject coverage and categorization, number of guides completed, and structure and types of resources linked with each guide. The examined online research guides are evaluated based on accessibility, variety, systematization, consistency, and hyperlinks. Based on the analyses, it suggests the directions of designing research guides for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Keywords: Research guide, Online research guide, Finding aids, Archival servi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National Archives (UK),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USA),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eol@pusan.ac.kr)

■ 접수일: 2015년 1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5년 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23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53-87,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1.053>>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립보존기록관(national archives)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 웹사이트의 일차적 기능은 국민들이 원하는 기록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10여 년 간 과거와 달리 다양한 기록 서비스를 추진해 왔으나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검색서비스는 낙후되어 있다.

좋은 검색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록의 특성에 맞는 검색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에서의 자료검색에 비해 보존기록관(archives)에서의 검색이 대체로 어렵고 효율성이 낮은 것은 기록이라는 개체가 매우 다양한 형식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는 자료 유형이 달라도 하나의 기술규칙이나 목록 표준을 적용하여 표준적인 온라인 목록을 생산할 수 있다. 보존기록관에서는 기록의 집합적 특성과 생산맥락 의존성 때문에 출처 기반의 계층적 정리와 기술을 하게 되며 ISAD(G)나 국가표준에 따라 비교적 일관성 있는 기술목록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출처별로 묶인 기록물 집합체 안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기록이 혼재되어 있어서 계층적 정리기술 만으로는 주제별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등록부나 케이스파일과 같이 기록물 건이나 철 목록 외에 인명이나 지명, 사번, 군번 등과 같은 접근점(access point)을 제공하는 특수 검색도구가 필요한 기록도 많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와

형식, 방대한 기록의 규모 때문에 도서관에서와 같은 키워드 검색으로 원하는 기록을 찾기는 극히 어렵다.

기록 검색도구를 설계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기록이 이용자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findable)’ 하는 것이다. ‘이는 기록(known item)’을 찾거나 기록 제목을 알고 검색하는 이용자는 드물다. 생산되는 기록의 양이 워낙 많고, 생산자도 자신이 생산한 기록의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이나 논문기사 등과 달리 기록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함축하는 제목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예 제목이 없어서 기록관리자가 제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검색(search)이라는 단어가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발견(find)은 “의도를 가지고 찾았다기보다는 우연히 눈에 띄었거나 어떤 것이 스스로 나를 찾아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Morbille, 2006). 검색도구 2.0이 표방하는 발견가능성(findability)은 이용 목적은 비교적 분명한데 접근방법을 모르는 기록 이용자들에게 더욱 중요하다(설문원, 2010).

발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간의 연계이다. 국가기록원 검색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설문원, 2012). 국가기록원은 ‘주제별 기록콘텐츠’ 혹은 ‘기록정보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기록 접근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구들은 대체로 ‘기록’보다는 기록 생산의 맥락인 사건 설명에 치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관련 기록의 목록을 보여주지만 생산맥락과 기록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

다. 즉,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마치 주인공에 대한 묘사는 없이 시대 배경만 장황하게 설명하다 주인공 이름은 누구라고 적고 끝나는 소설과 같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의 일차적 목적은 정책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백과사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잘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콘텐츠 전략을 수정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도구는 검색가이드(research guide)이다. 온라인 형식의 검색가이드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록이나 다양한 검색도구와 관련 정보자원을 모으고 각각의 의미와 특징, 이용방법 등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이 연구는 이용자가 기록을 쉽게 '발견'하고, 기록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검색가이드에 관한 기초 연구이다. 영국, 미국, 호주 국립보존기록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검색가이드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기록원이 온라인 검색가이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검색가이드에 대한 연구는 기록관보다 도서관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서관에도 가이드가 존재하며 최근 국내에서도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별 혹은 학과별로 온라인 가이드를 개발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도서관의 research guide나 subject guide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도서관가이드, 주제가이드, 연구가이드, 연구지원 가이드 등의 다양한 대역

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도서관정보학회(2011)는 주제가이드를 "어떤 특정 분야나 테마에 대해 연구나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사서 등을 대상으로 그 분야나 테마의 연구법이나 연구동향, 기본문헌, 주요 잡지, 이차 자료, 문헌 탐색 방법이나 도서관 이용법을 해설한 참고도서"라고 정의한다(김수정, 2010, p. 166에서 재인용). 특정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록 검색가이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책자형의 주제가이드는 1990년대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연구가이드, 연구도구, e-guides, 웨블리오그래피(Webliographies), 주제 포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Tchangalova & Feigley, 2008: 김수정, 2012, p. 166에서 재인용).

최상희(2010)는 북미지역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의 현황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을 구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5개 영역(연구주제, 연구방법, 정보이용, 연구결과 저작, 연구활동)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research guide를 '연구지원 가이드'로 해석하고, 교수와 학생의 연구 지원이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북미대학도서관에서 가이드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배경에 주제전문사서제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존기록관에서도 가이드가 제대로 개발되려면 분야별 아키비스트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화(2010)는 대학도서관 가이드의 일종인 '강의별 학술정보페이지'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강의별 학술정보페이지는 하나의 게이트웨이에서 강의정보와 도서관자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강의관리시스템과 연

계된 별도의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의정보와 도서관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이드를 주제마다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자동구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제별 가이드가 모두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이드를 이용할 수요자를 최대한 고려하여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김수정(2012)은 국내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주제가이드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유용성 측면(명칭의 일관성, 접근성, 포맷의 일관성, 최신성, 키워드 검색엔진 제공, 사서정보)과 내용 측면(주제의 다양성, 정보자원의 종류, 배열체계, 이용자교육)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기록 검색가이드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편 노영희, 박양하(2014)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 분야별 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정책분야 주제별 가이드를 개발하고 실험콘텐츠를 구축하였는데, 현행의 기능분류체계에 기반한 가이드 설계방식은 (준)현용 기록정보를 안내하는 가이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보존기록관의 기록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검색가이드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존기록관의 검색가이드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으나 가이드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로는 설문원(2010), 이윤령과 이해영(2014)의 연구가 있었다. 설문원(2010)은 가이드를 포함한 검색

도구 전반의 진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검색도구의 구조 변화와 전망,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환경에서 검색도구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이드와 같은 형식의 도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윤령과 이해영(2014)은 미국, 영국, 호주, 우리나라 국립보존기록관의 검색도구에 대한 국내이용자들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층형 기술검색시스템, 주제별 검색가이드, 각종 검색도구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하고 있어서 각국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색도구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1.3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영어권 국가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체계적으로 검색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의 국립보존기록관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영국 The National Archives (TNA), 미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호주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NAA),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검색가이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각 가이드별로 다음 사항을 분석하였다.

첫째, 가이드 작성의 대상은 무엇인가? 어떤 주제 범주의 가이드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개발되었는지 조사하였다. '가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제 및 토픽별로 기록 및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도구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웹사이트에서 가이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성은 가이드의 유용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웹사이트에서 어떤 채널로 접근하도록 하는지, 가이드에 대한 검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가? 검색가이드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 각 항목에 어떠한 정보가 기술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구조와 구성요소 조사에 역점을 두었다.

넷째, 연계정보의 유형과 연계방식은 어떠한가?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기관 내외의 다양한 기록과 정보, 검색도구를 연계하는 것이다. 연계 정보의 유형을 통해 자원통합도구로서의 가이드의 기능을 살펴보고, 기록 연계 방식을 통해 가이드가 기록 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 검색가이드 재설계를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 검색가이드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따라 조사내용을 종합·분석하였다. 요건은 자원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록 검색가이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 가이드의 평가지표를 참고로 하였으며, 이용자가 기록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는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검색가이드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김수정(2012)이 제시한 도서관 주제가이드 평가지표 중 기록검색가이드에 적절한 지표는 명칭, 접근성, 포맷의 일관성, 최신성, 주제의 다양성, 정보자원의 종류라고 보았다. 여기서 명칭은 접근성에 포함시켰고, 주제의 다양성은 포괄성으로, 정보자원의 종류는 연계성의 일부로 파악하여 이 연구에서는 접근성, 포괄성, 체계성, 일관성, 연계성, 최신성을 일차적 요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신성의 경우 인터넷에 노

출된 정보만으로 조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주안점이 검색가이드 평가보다는 설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에 있으므로 엄밀한 평가보다 각 요건별 모범 사례 확인에 역점을 두었다.

## 2. 기록 검색가이드의 개념과 의의

### 2.1 개념과 특징

이 연구에서는 research guide를 '검색가이드'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보존기록관에서 열람실을 research room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research는 연구라기보다는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기록을 찾고 열람하는 것에 가깝다. 과거 보존기록의 이용자는 주로 연구자였고 기록을 찾아서 읽는 활동에는 본질적으로 기록 집합체 및 맥락 해석과 같은 연구행위가 포함되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research란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한편 영국이나 호주에서 사용하는 research guide는 특정 주제에 관한 기록 검색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 검색도구 및 기록을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도구를 지칭한다. 따라서 '연구 가이드'나 '열람 가이드'보다는 '검색가이드'라는 번역어가 research guide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검색가이드의 뿌리는 서양의 보존기록관(archives)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가이드(guide)'라고 볼 수 있다. 검색도구로서 가이드는 보존기록관이 소장 기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도구였다. 기록학 용어사전에서 가이드는 "하나 혹은 여러 보존기록관이 소장한

기록물에 대한 개괄적 기술”이며 주로 컬렉션 별로 기술된다고 밝히고 있다(Rearce-Moses, 2005, p. 187). 자동화시스템이 출현하기 전에는 출판물 형식의 가이드가 소장기록물 전반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안내서였으며, 대개 컬렉션이나 기록물군에 대한 간략한 기술로 구성되었다. 가이드는 이관 받는 기록물(archives) 보다는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이용에 더욱 요긴했는데, 생산기관명을 보면 기록물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아카이브에 비해, 여러 출처에서 수집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경우 추가 설명 없이는 어떤 기록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Miller, 2002, pp. 167-169).

가이드의 형태와 구성은 다양했다. 보존기록관의 수많은 인벤토리를 간략하게 축약하여 가이드를 만들기도 했고(Miller, 2002, p. 169), 여러 보존기록관이 소장한 기록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inter-repository guide)도 있었으며(Pearce-Moses, 2005, p. 187), 특정 주제나 기록유형별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가령, 남북전쟁에 관한 많은 출처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이를 주제가이드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가이드는 단일 기관의 소장기록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나, 복수 기관이 소장한 남북 전쟁 관련 기록물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또한 사진기록물과 같이 특수한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였다. 주제나 유형별 가이드의 경우 컬렉션이나 기록물군과 같이 최상위 계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리즈, 철, 건까지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Miller, 2002, p. 168).

그러나 가이드는 출판물 형식이었기 때문에 단일 보존기록관에 국한한다 해도 소장 기록을

모두 포괄하는 가이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기술해야 할 기록의 양이 방대하였고, 인벤토리를 축약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더욱이 기록은 계속 수집되기 때문에 출판 이후 내용의 최신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밀러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자동화된 아카이브에서 가이드는 극히 제한된 역할만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Miller, 2002, p. 169).

그러나 밀러의 예측과는 달리 새로운 환경에서 가이드는 ‘온라인 가이드’로 재설계되었고, 기록을 안내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전히 존재한다. 컬렉션별 개요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이드와 구조가 달라졌고, 다양한 검색도구와 기록물을 연계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하는 검색 가이드의 역할은 오히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 2.2 검색가이드의 필요성과 역할

대부분의 국립보존기록관이 소장한 기록의 규모의 방대하다. 이러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검색하려면 다른 정보자원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정 주제의 자료를 찾기 위하여 도서관 온라인목록(OPAC)에 주제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자료목록이 열거되고 적절히 제한 검색을 하면 원하는 자료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찾기 위해 주제어를 입력하면 대체로 상당한 숫자의 목록이 열거된다. 이용자는 목록 건수에 압도되어 검색을 중지하거나, 끈기 있게 목록을 훑어본다 하여도 원하는 기록을 찾아낼 확률은 낮다. 주제어 색인이 세밀하게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재현율도 낮은 것이다. 검색가이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기

록을 찾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계층적 기술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영국 TNA 웹사이트에서 이혼 관련 기록을 찾고자 할 때 이용자가 'divorce'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174,129건의 검색결과가 나타난다(2015년 1월 15일 현재). 만약 특별한 인물의 이혼 관련 문서를 찾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색범위를 제한하여도 일반 검색시스템(Our Catalog)에서 원하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검색가이드에서 'divorce'를 찾으면, TNA가 소장하고 있는 이혼 관련 기록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특정인의 이혼 기록은 어떻게 찾는지가 상세히 안내된다. 인명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도 링크된다.

국가기록원에서도 특정 독립운동가의 판결이나 수형 관련 기록을 찾기 위해 통합검색창에 인명을 검색하면 원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특수 검색도구인 '독립운동 판결문' 콘텐츠에 접근하여 인명검색을 하면 원하는 기록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독립운동 판결문은 물론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에 대해서도 인명, 주소 및 본적, 죄명, 판결기관, 의병운동 시기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1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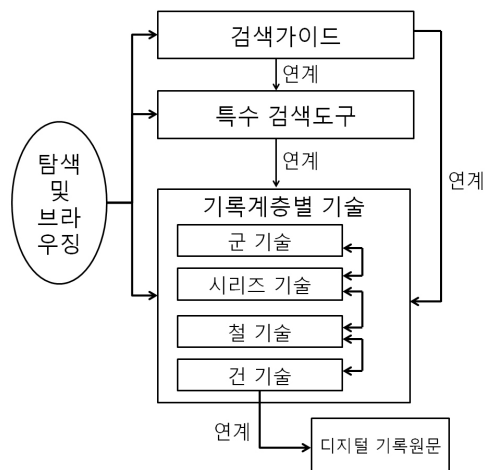
이렇게 등록부나 대장 형식의 케이스파일 기록을 검색하려면 특수한 색인어 접근이 가능한 검색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 검색도구는 기록 유형에 따라 색인어 및 검색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이용자는 이러한 검색도구의 이용법은 물론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으므로, 가령 독립운동을 검색했을 때 기록 목록을 열거해주기 전에, 관련 검색도구, 관련 웹사이트 정보, 출판물 등의 특징과 이용법 등을 전체

적으로 안내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가기록원에서는 그러한 도구를 찾기 어려웠다. 국가기록원이 '전문 콘텐츠'란 이름으로 많은 특수 검색도구를 만들어 왔지만 활용도가 낮은 것은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목적별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위해서 특수 검색도구를 개발할 필요는 없으며, 이용방법이 특수하면서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 개발하면 될 것이다. 토지 소유권 입증에 관한 기록 요청이 많다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의 기록을 대상으로 인명이나 주소 검색이 가능한 검색도구를 만들어야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립보존기록관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수 검색도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검색도구가 존재하는지 이용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찾고자 하는 기록의 특징과 집적 형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또한 기록유형별 집합체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검색도구를 미처 알지 못하거나 접근법을 모른다면 원하는 기록을 찾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검색가이드이다. 검색가이드는 기록집합체와 검색도구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아우를 수 있는 도구이다.

검색가이드, 특수 색인어 유형을 포함하는 특수 검색도구, 계층별 기술은 모두 검색도구의 일종이다. 그러나 각각이 검색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르다. 검색가이드는 다양한 검색도구와 계층별 기술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각 검색도구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이러한 기록 검색도구들의 관계를 표현하면 <그림 1>

과 같다. 또한 검색가이드는 검색도구 외에도 관련 웹페이지나 출판물, 웹사이트 등 기록물 관리기관 내외의 정보원을 모아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기록 검색도구들의 관계

기록물관리기관의 검색가이드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관리기관 내외의 다양한 정보원을 주제별로 모아줌으로써 특정 기록에 대한 '의도적 검색' 없이도 기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검색도구에 대한 검색도구, 즉 메타 검색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기록검색도구와 이용법을 설명하고 해당 검색도구와 연계해 준다.

셋째, 주제와 관련된 특정 기록유형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생산 배경을 설명하고, 배경과 기록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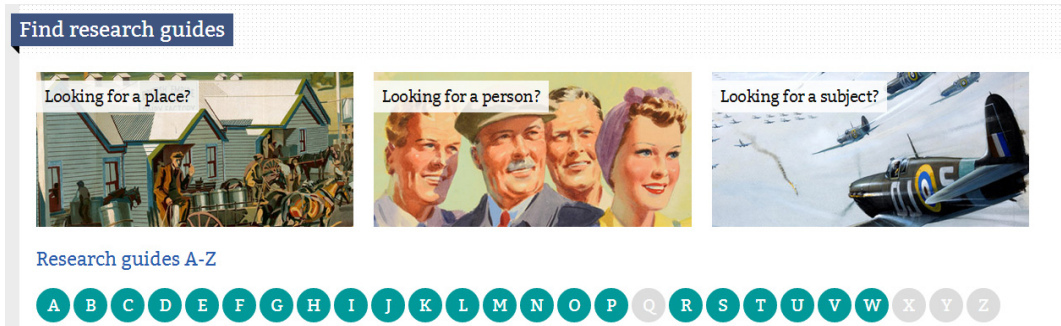
### 3. 사례 분석

#### 3.1 영국 TNA

##### 3.1.1 명칭과 접근

영국 TNA는 웹사이트를 통해 300개에 달하는 온라인 검색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Research Guide란 명칭을 사용하지만 Research Guidance란 표현도 간혹 발견되었다. 웹사이트에서 검색가이드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우선 분야별 브라우징을 통해 가이드에 접근할 수 있다. TNA의 초기 화면에서 'Records'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가이드를 장소, 인물, 주제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로 다시 하위 영역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장소 관련 기록 검색을 지원하는 가이드들은 'Looking for a place?(이하 장소 가이드)', 인물 관련 기록 검색을 지원하는 가이드들은 'Looking for a person?(이하 인물 가이드)', 그 밖의 가이드들은 'Looking for a subject?(이하 주제 가이드)' 아래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주제어 브라우징을 통해 검색가이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의 하단에 보이는 'Research Guides A-Z'에서는 주제어를 알파벳순으로 제시하고, 해당 주제어와 관련된 가이드를 알려준다. 가령 'America'라는 주제어를 선택하면 이와 관련된 4개의 가이드(△1782년 이전의 미국과 서인도제도 식민지, △미국독립전쟁, △범죄인 수송객: 추가 검색, △식민지 미국과 서인도제도 국가문서목록(Calendar of State Papers) 이용법 1573-1739)을 안내해 준다. 이 가이드들은 인물이나



〈그림 2〉 영국 TNA의 검색가이드 메뉴

장소, 주제 범주별로 접근했을 때 연결되는 가이드와 동일하다. ‘범죄인 수송객: 추가 검색’은 인물 가이드에, ‘1782년 이전의 미국과 서인도제도 식민지’는 장소와 주제 가이드에 동시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주제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다. ‘Research Guides A-Z’는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친숙한 주제어로 검색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이드의 접근성을 높여준다.

### 3.1.2 개발 대상과 범주

TNA 검색가이드의 수를 분야별로 집계하면 〈표 1〉과 같다(The National Archives, 2015a). 장소 가이드는 6개 분야의 48개, 인물 가이드는 16개 분야의 114개, 주제 가이드는 20개 분야 132개로 총 294개이다. 그러나 하나의 가이드가 여러 군데로 분류된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수는 이보다 적다. 예를 들어 ‘영국 식민지와 보호령(Colonies and dependencies)’ 가이드는 장소와 주제 범주에 모두 배치되어 있다.

TNA가 검색가이드를 작성하는 대상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가이드는 특수 검색도구가 존재하는 기록물유형에 대하여, 또한 관련 기

록이 다양한 기록물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소 가이드는 지명, 국명 등이 주요 접근점이 될 수 있는 유형의 기록물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장소 가이드인 ‘영국 식민지와 보호령(Colonies and dependencies)’에서는 국명 검색이 가능한 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공하고, ‘지도(Maps)’ 가이드에서는 지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안내한다. 인물 가이드들은 출생 및 사망, 혼인과 이혼, 군복무 기록 등과 같이 인명 접근점이 필요한 기록물 이용법을 제공한다.

주제 가이드의 경우, 인명이나 지명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역사적 주제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주제가 아니라 생산출처에 따라 기록을 정리(arranging)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역사 주제별로 기록을 검색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The National Archives, 2015b). 〈표 1〉에서와 같이 주제 가이드의 영역은 다양했지만, 기록물이 존재하는 주제를 대상으로 가이드를 편성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제 가이드는 주제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물 이용을 안내한다는

〈표 1〉 영국 TNA 검색가이드의 분류와 규모  
(2015. 1. 15 현재)

| 분야 | 하위 분야   | 가이드 수 |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과 세계</li> <li>• 도시, 소도시, 마을</li> <li>• 건물과 기관</li> <li>• 지도, 도면, 토지/측량 조사서</li> <li>• 토지</li> <li>• 돗즈데이북(Domesday Book)</li> </ul>  | 48개   |
| 인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 사망, 기타 생애사건</li> <li>• 인구와 유권자</li> <li>• 유언장</li> <li>• 이주민, 승객, 난민,</li> <li>• 전쟁포로, 양심적 병역거부자</li> <li>• 육군병</li> <li>• 해군병</li> <li>• 공군병</li> <li>• 해병대</li> <li>• 훈장과 표창 수상자</li> <li>• 근로자와 고용인</li> <li>• 범죄자, 파산자, 소송인</li> <li>• 상선 선원</li> <li>• 종교집단</li> <li>• 노예, 계약 노동자</li> <li>• 망명 수용자</li> </ul>  | 114개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00년 이후 정치사</li> <li>• 1800년까지의 정치사</li> <li>• 식민지 역사</li> <li>• 외교</li> <li>• 의회</li> <li>• 보건과 사회복지</li> <li>• 2차 세계대전</li> <li>• 1차 세계대전</li> <li>• 기타 전쟁과 군사 활동</li> <li>• 영국 육군</li> <li>• 영국 해군</li> <li>• 영국 공군</li> <li>• 군대(Armed forces)</li> <li>• UFOs</li> <li>• 문화 역사</li> <li>• 교육</li> <li>• 법원 기록물과 사법 역사</li> <li>• 금융, 기업, 산업</li> <li>• 이주와 시민권</li> <li>• 수송과 해양 역사</li> </ul> | 132개  |
| 계  | 총 42개 분야  | 294개  |

목적은 분명히 보여준다. “잉글랜드 민사 재판 (1656~1971): 순회 재판 기록 요지”, ‘항구 등록 부(Port books), 1565-1799’ 등과 같이 특정 유형의 기록물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들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소, 인물, 주제의 구분은 개념적 분류가 아니라 이용방법을 고려한 범주화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민(immigration)’과 ‘이민자(immigrants)’는 유사 주제에 속하지만 관련 기록의 검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주제 가이드로, 후자는 인물 가이드로 분류되어 있다.

### 3.1.3 구조와 연계 정보

TNA 가이드의 구조는 매우 일관성이 있었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포함하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정보 배치나 강조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 기록 안내를 강조하는 ‘온라인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온라인 가이드이면서도 전통적인 출판물 가이드에서처럼 목차가 있고 목차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므로 ‘목차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목차형보다 온라인형 가이드의 숫자가 많았는데 ‘영국 식민지와 보호령(Colonies and dependencies)’ 가이드를 사례로 구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 가이드는 ‘영국과 세계(Britain and the world)’ 분류에 속한 장소 가이드이다.

TNA 내외의 다양한 정보원을 안내하면서 검색할 때 입력해야 할 키워드, 유형별 기록의 특징과 검색법, 관련 검색시스템, 다른 웹사이트, 참고자료, TNA 사이트의 다른 웹페이지 등과 링크시켜줌으로써 온라인 가이드의 이점을 살리고 있다.

〈표 2〉 TNA 장소 가이드 사례: ‘영국 식민지와 보호령’ [온라인형]

| 항 목                           | 내 용  | 연계정보         |
|-------------------------------|--|--------------|
| 기록검색 전에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나라가 언제 영국 식민지나 보호령이었나?</li> <li>• 나라명이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가?</li> </ul>  | -            |
|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록물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내각문서(Cabinet papers) 검색사이트로 안내</li> <li>• 이 사이트 자체가 내각문서에 대한 검색가이드라고 볼 수 있음</li> <li>•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면 디지털화된 내각문서에 대한 키워드 검색, 브라우징 등을 제공하고 내각문서를 활용한 교육지침 및 콘텐츠 제공. 계층적 주제분류체계를 만들어 각 하위주제별로 내각문서 목록과 원문 제공</li> </ul>                              | 기록유형별 검색사이트  |
| TNA에서 어떤 기록을 찾을 수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lonial Office 및 기타 정부부서에서 이관 받은 기록 을 대상으로 나라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 제공</li> <li>• 지도와 계획서(1595-1927) 검색창</li> <li>• 사진(1815-1986) 검색창</li> </ul>   | 특수 검색도구      |
| 다른 보존기록관·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관련 기록</li> <li>• BL이 소장한 인도 관련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li> <li>• British Library(BL) 웹사이트로 연계</li> </ul>  | TNA외 기관 웹사이트 |
|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행본 소개(Administering the Empire, 1801-1968: A guide to the records of the Colonial Office in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K by Mandy Banton(Institute of Historical Research/TNA, 2008)</li> <li>• TNA의 bookshop 및 TNA Library 웹페이지로 연계</li> </ul> | TNA의 다른 웹페이지 |
| 관련 가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5개 가이드 연계(Foreign countries, Immigrants, Emigrants, Colonies and dependencies: further research, Maps and plans of lands abroad)</li> </ul>   | 관련 가이드       |
| 기록 개관 및 맥락 정보 (Did you kno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NA가 소장한 구식민지 기록의 유형</li> <li>• 식민지 업무를 담당한 정부부처들</li> <li>• 식민지 기록의 생산 및 축적 양태, 정리체계 소개</li> <li>• 식민지 기록의 주요 소장처 정보(대부분은 TNA가 아니라 식민지국가의 국가기록관에 남아있음)</li> </ul>  | -            |

〈표 3〉은 온라인형에 속하면서 인물 가이드인 ‘이주민(immigrants)’ 가이드를 조사한 것이다. 앞의 사례와 거의 유사하지만, 외국인 도착증서, 외국인 등록부, 외국인 등록카드, 입국 여행객 리스트 등 주로 인명 검색이 필요한 기록물 이용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명 검색과 디지털 원문 제공이 가능한 검색사이트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들은 검색은 무료이지만 디지털 원문을 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업적 사이트(ancestry.com, BMDregisters.co.kr)들이었다.

한편 이 가이드에서 소개하고 있는 귀화 케이스 파일(Naturalisation case papers, 1789-1934)과 외국인 등록카드(Aliens' registration cards 1918-1957)에 대해서는 TNA 사이트의 다른 메뉴인 ‘Our Online Records’에서도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의 연계를 제공한다.

두 번째 유형인 목차형 가이드는 〈표 4〉와 같은 구성을 갖는다. ‘이민(immigration)’을 사례로 작성된 이 가이드는 목차를 한쪽에 따로 디스플레이하고 있다. 단행본의 서론과 같이 “이

〈표 3〉 TNA 인물 가이드 사례: '이주민' [온라인형]

| 항 목                        | 내 용  | 연계정보   |
|----------------------------|--|--|
| [가이드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00년간 영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에 대한 기록</li> <li>• 여러 정부 부처가 다양한 시기별로 생산</li> <li>• 일련의 기록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명에 대한 종합 색인은 없음</li> <li>• 많은 이민기록이 폐기되었음</li> </ul>                              | -  |
| 기록검색 전에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에 도착한 날짜와 장소</li> <li>• 출발한 국가</li> <li>• 영국으로 올 때의 교통수단</li> </ul>   | -  |
|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록물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유형별(외국인 도착증서, 외국인 등록부, 외국인 등록카드, 입국 여행객 리스트 등)로 온라인 시스템 연계</li> <li>• 모두 상업적 사이트(ancestry.com, BMDregisters.co.kr)이며, 인명 등으로 상세 검색이 가능하고 디지털기록물 원문을 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유형별 검색 사이트 (민간)</li> </ul>        |
| TNA에서 어떤 기록을 찾을 수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 케이스 파일(Naturalisation case papers, 1789-1934)에 대한 인명 검색 창 제공(원문은 유료서비스)</li> <li>• 관련 가이드 링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검색도구</li> <li>• 관련 가이드</li> </ul> |
| 다른 보존기록관·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NA의 기본검색시스템(Our Catalog) 안내(Our Catalog에서는 TNA외 기관의 기록을 포함한 통합검색서비스 제공)</li> </ul>   | TNA의 기본검색 시스템  |
|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행본 소개(Roger Kershaw, Migration Records, The National Archives, 2009). TNA Library 웹페이지로 링크</li> <li>• 웹사이트 소개(Moving Here 사이트 링크)</li> </ul>                                   | 관련 웹 사이트   |
| 관련 가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5개 가이드 연계(Passengers, Naturalised Britons, Tracing living people, Immigration, Emigration)</li> </ul>   | 관련 가이드   |
| 기록 개관 및 맥락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이민자와 관련된 용어, 관련법의 내용, 이민자 관련 기록에 기재된 항목들, 주요 소장처 및 생산자, 기록되지 않은 이주 형태(비행기로 영국에 도착한 사람들 여행객) 정보 제공</li> </ul>   | -  |

〈표 4〉 TNA 주제 가이드 사례: '이민' [목차형]

| 목 차                  | 내 용  | 연계정보   |
|----------------------|--|--------|
| 1. 이 가이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가이드는 다음 정보를 찾는데 유용할 것임</li> <li>- 13세기 이후 영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의 기록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li> <li>- 영국 거주 외국인의 생활상과 도착 기록을 생산한 정부부처와 이들 부처가 생산한 기록의 특징에 관한 정보</li> <li>•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immigrants, emigrants, passengers, naturalised Britons 참고(링크 제공)</li> </ul> | 관련 가이드 |
| 2. 핵심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자 관련 정보를 탐색은 어렵다. TNA의 많은 기록은 불완전하고, 어떤 기록시리즈는 특정 시기나 특정 유형의 이민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li> <li>• 기록이해에 필요한 용어 정의: 거주외국인(Aliens), 영주권자(Denizens), 귀화(Naturalisation)</li> </ul>   | -      |

| 목 차   | 내 용  | 연계정보  |
|---|--|---|
| 3. 초기 Chancery 기록<br>4. Exchequer 기록<br>5. State papers<br>6. Parliament or patent rolls<br>7. Treasury in-letters<br>8. Non-parochial registers<br>9. 18세기 초 팔레틴 이주자 출항 리스트 등<br>10.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도착 및 귀화기록<br>11. French émigrés 기록<br>12. 승객 리스트<br>13. 거주 외국인 등록부<br>14. 억류 재판소 카드<br>15. Royal Patriotic Schools의 London Reception Centre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5와 같이 유형을 구분한 후 관련 기록과 이용방법 소개</li> <li>• 기록의 범위와 특징, 기록물 기술(참조코드+기록명+해당 기술 링크), 관련 가이드 등을 제공</li> <li>• 필요한 경우 특수 색인어(인명, 국적, 도착일자 등) 안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물 기술</li> <li>• 외부사이트</li> <li>• 관련 가이드</li> </ul> |
| 16. 정보자유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개 기록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자유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립.</li> </ul>   | TNA의 다른 웹페이지  |
| 17. 다른 아카이브 소장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내 아카이브 링크 제공</li> </ul>  | 외부 사이트  |
| 18. 추가로 읽을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NA도서관이 소장한 참고 자료 리스트 제공</li> </ul>   | TNA의 다른 웹페이지  |

가이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맨 앞에 위치하고, 기록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용어 설명이 이어진다. 다음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주요 기록을 유형별, 출처별로 구분한 후 이용 가능한 기록의 범위와 특징, 사용가능한 특수 색인어(인명, 국적, 도착일자 등) 등을 안내하고, 관련 기록물 기술(description)과 연계한다(〈표 4〉의 3~15 참조).

이 가이드에서는 기록출처나 유형별로 매우 상세한 안내를 해주고 있었는데, 가령 ‘10.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의 도착 및 귀화 기록’에 속한 ‘10.1 거주 외국인 도착증서와 리스트’를 보면 “HO 2(기록물 참조코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거주 외국인의 도착증서 원본을 포함하며 도착항구별로 분류되어 있음. 증서에는 국적,

직업, 도착일자, 최근 방문 국가, 서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과 같이 관련 기록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리즈 기술로 링크해준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시기의 기록물을 소개하며, ‘외국인 도착증서’는 “ancestry.co.uk에서 외국인명, 도착일자, 도착항구, 출발한 국가/장소로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검색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그 밖의 특별한 색인이나 검색도구도 알려주고 있다.

‘사진’ 가이드와 같이 특정 유형의 기록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표 5〉 참조). 이 가이드는 주제 가이드 ‘문화사(Cultural history)’ 영역에 속해 있으며, 목차형에 속하지만 구성은 다른 목차형 가이드들과 약간 다르다. 사진기록

〈표 5〉 TNA 주제 가이드 사례: '사진' [목차형]

| 목 차                         | 내 용  | 연계정보                      |
|-----------------------------|--|---------------------------|
| 1. 이 가이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 사진기록 이용에 필요  | • TNA 검색시스템 (our catalog) |
| 2. 핵심 정보                    | 소장 범위, 정리체계  |                           |
| 3. TNA에서 사진기록을 탐색하는 방법      | 탐색방법<br>• 키워드 검색(기술목록)<br>• 지명, 인명/단체명으로 검색가능한 목차형 색인 안내<br>• 시리즈 기술의 이용법<br>• TNA의 이미지 도서관(선별된 사진에 대한 디지털화 사진을 제공하는 웹페이지) | • TNA 검색시스템 (our catalog) |
| 4. TNA 목록에 없는 파일의 사진을 찾았다면? | • 열람 중에 목록되지 않은 기록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연락하라는 안내   |                           |
| 5. TNA 외에 소장된 기록            | 정부 출처의 사진기록, 민간 사진컬렉션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장 기관 안내   | • 외부 사이트                  |
| 6. 사진 훼손에 대한 경고             | 사진의 물리적 보호에 대한 경고  |                           |
| 7. 부록 1                     | 소장 사진기록물의 정리체계(시리즈별 개요)  | • 기록물 기술                  |

물을 탐색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기록유형별 안내가 없는 대신 TNA 소장 사진기록물 정리체계 및 시리즈별 개요를 부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물이나 장소 가이드는 온라인형이 많았고 주제 가이드는 상대적으로 목차형이 더 많았으며, 양쪽이 각기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온라인형은 다른 사이트나 검색도구로의 연계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었고, 목차형은 특정 주제에 관한 기록이 여러 출처와 유형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목요연하게 안내할 수 있는 편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3.2 미국 NARA

#### 3.2.1 명칭과 접근

미국 NARA에서는 'Research by Topic'(이하 '주제별 검색') 메뉴에서 검색가이드를 제공한

다. 〈그림 3〉의 화면에서 'Research a Specific Topic'을 클릭하면 주제검색 페이지로 연결된다. 다른 보존기록관에서는와 같이 NARA의 기본 검색도구인 Online Catalog(구 ARC)도 출처별 정리체계에 따른 기술검색시스템이므로, 특정 주제에 대한 기록을 검색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NARA에서는 가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일정하게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제별 검색' 서비스가 2장에서 밝힌 검색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구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영국 TNA에서와 같이 NARA 웹사이트에서도 초기 화면에서 기록검색 메뉴(Research Our Records)를 클릭하면 〈그림 3〉과 같은 화면이 나오므로 검색가이드의 온라인 접근성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주 찾는 기록',



〈그림 3〉 미국 NARA의 '주제별 검색' 메뉴

'소장기록 하이라이트', '특정 전쟁에 관한 정보'와 같이 다양한 가이드로 연계해주는 링크형 메뉴들도 있었다. 동일한 가이드가 여러 군데에서 연계되고 있어 이용자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동일한 웹페이지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느껴졌다.

### 3.2.2 개발 대상과 범주

NARA는 가이드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그 아래의 세부 분류에 따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각 가이드는 주제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해당 기록의 전반적인 소개와 검색 안내를 담고 있다. 8개

분야는 〈표 6〉에서와 같이 △미국의 건국 문서 (America's Founding Documents), △외교정책·군사기록·수사, △사립, △장소, △연방정부, △해양·항공·과학·기술, △사건·기념·공휴일, △예술과 문화이며, 33개의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5a).

세부 분야별 가이드가 있지만, 그 아래 다시 세부 가이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가이드의 숫자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가령 '외교정책·군사기록·수사' 가이드에서는 관련 분야 기록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쟁 관련 가이드들에 대

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미국독립전쟁, 1812년 전쟁, 멕시코전쟁, 남북전쟁, 미서전쟁, 필리핀 봉기, 의화단 사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각 전쟁별로 가이드를 개발하여 연계·제공하고 있다.

〈표 6〉 미국 NARA의 가이드 분류

(2015. 1. 15 현재)

| 분 야               | 하위 분야  |
|-------------------|--|
| 미국의 건국 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 선언문</li> <li>• 헌법</li> <li>• 권리장전</li> <li>• 연합 규약</li> </ul>                            |
| 외교정책, 군사 기록,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과 병역기록</li> <li>• 외교정책</li> <li>• 법 집행과 조사</li> <li>• 첩보</li> </ul>                       |
| 인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를 가진 미국인</li> <li>• 계보학</li> <li>• 소수민족의 유산</li> <li>• 대통령과 유명인사</li> <li>• 여성</li> </ul>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와 주</li> <li>• 탐험과 서부개척</li> <li>• 지도와 농업 기록</li> <li>• 환경</li> <li>• 교도소</li> </ul>      |
| 연방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li> <li>• 입법부</li> <li>• 사법부</li> <li>• 선거</li> <li>• 연방 공무원</li> </ul>                |
| 해양, 항공, 과학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우주</li> <li>• 해양과 등대 기록</li> <li>• 의료와 공중 보건</li> <li>• 과학 기술</li> </ul>                 |
| 사건, 100주년 기념, 공휴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00년 이전</li> <li>• 19세기</li> <li>• 20세기</li> <li>• 최근 역사</li> </ul>                        |
| 예술과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li> <li>• 나치 시대 문화 재산</li> </ul>  |

NARA의 경우, 가이드의 숫자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작은 가이드에서부터 규모가 큰 가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또한 가이드 개발의 원칙이나 전략에 따라 만들어졌다고보다는 그때그때 만들어진 안내 정보나 가이드를 ‘주제별 검색’ 메뉴에 모아 두었다는 인상이었다.

### 3.2.3 구조와 연계정보

NARA의 경우 구조가 매우 다양했는데 우선 검색가이드의 역할에 충실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7〉은 ‘외교정책·군사기록·조사’에 속한 ‘전쟁과 병역 기록(Wars and Military Records)’ 가이드의 구성이다(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5b).

관련 기록의 검색법과 주요 기록의 특징, 소장처 등을 포괄적으로 안내해준다는 점에서 TNA 가이드와 유사했으나 전체 구성은 다소 산만했다. 이 가이드에는 인벤토리 형식의 검색도구가 PDF형태로 제공되고 있었고 기록물유형이나 군대별로 만들어진 많은 가이드들이 링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연계되는 많은 가이드들이 ‘주제별 검색가이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TNA와 비교하기 위하여 NARA에서도 ‘이민기록(Immigration Records): 선박 승객 도착기록’ 가이드를 살펴보았다(〈표 8〉 참조). 이 가이드는 ‘인물’ 하위의 ‘계보학’ 범주에 속해 있으므로 계보 연구자들이 이민기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구조나 제공하는 정보는 TNA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연계되는 정보는 매우 다양했다. 특히 NARA가 발간하는 잡지 기사, AAD 데이터파일, 검색시

<표 7> NARA 주제별 가이드 사례: '전쟁과 병역 기록'

| 항목                 | 항목명  | 내용  | 연계정보  |
|--------------------|--|---|---|
| 병역 기록 검색법          | NARA가 가지고 있는 병역 기록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독립전쟁부터 1912년까지 연방 군복무기록이 워싱턴 National Archives(NA)에 소장되어 있음.</li> <li>• 1차세계대전에서 현재까지 병역기록은 세인트루이스(미주리)의 National Military Personnel Records Center (NPRC)에 소장.</li> <li>• NA는 주의 시민군 병역기록은 소장하고 있지 않음. 해당 주립기록관에 문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와 NPRC소장 병역 및 연금기록 개요 및 이용법(NARA의 웹 페이지)</li> </ul>  |
|                    | 병역기록이 가계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사례의 병역기록은 퇴역군인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li> <li>• 군복무 편찬기록(Compiled Service Records): 부대원명단, 복귀, 월급 영수증 등의 기록에서 간추린 카드를 포함하고 있는 봉투로 구성됨. 조상의 계급, 소속부대, 입대 및 체대일자, 기본 인적사항, 의료정보, 복무정보 제공</li> <li>• 연금 신청 및 지급 기록: 퇴역군인 및 미망인, 상속자들의 연금 신청 및 지불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며 NA에 소장된 기록은 1775년부터 1916년 시기 미군 복무에 대한 연금 기록임. 연금신청서에 많은 가계 정보가 포함됨. 복무기간 중의 사건에 대한 진술, 결혼증명, 출생기록, 사망증명 등.</li> <li>• 하사 토지(bounty land): 하사 토지지급 신청서 파일은 1775년과 1855년 3월 전쟁 참전과 관련된 요구와 관련 있음. 당신의 조상이 미국독립전쟁이나 1812년 전쟁, 초기 인도전쟁, 멕시코전쟁에 참전했다면 이 기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이하 생략)</li> </ul> | -   |
|                    | 어떻게 시작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정보를 가지고 검색 방향을 잡을 수 있음.</li> <li>• 당신 조상이 복무했던 군대, 분쟁, 날짜, 정규군인지 자원병인지 여부, 장교인지 일반병인지, 연금신청을 했는지 등</li> <li>• 병역 기록 이용 안내 기사(Prologue Magazine): 자원병을 위한 군복무 편찬기록, 정규군(복무기록), 하사 토지(기록)에 접근하는 방법, 핵심기록, 검색접근점(인명 등), 기록의 배열체계 등</li> </ul>   | Prologue Magazine 기사  |
| 병역기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 군복무기록은 2개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음.</li> <li>• 미국독립전쟁부터 1912년: 워싱턴 D.C.의 NA(링크)</li> <li>• 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 세인트루이스의 National Military Personnel Records Center(NPRC)(링크)</li> </ul> | NA와 NPRC 위치 (NARA의 다른 웹페이지)   |   |
| 병역 기록              | 병역기록에 관한 일반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소장 병역 기록 개요(Prologue Magazine 기사 PDF)</li> <li>• 병역 참고 자료: "1789-1916년 정규군 장교" 기록검색을 위한 가이드(2010.12 갱신) 등 40여 개 PDF형식의 가이드 제공</li> <li>• 연금파일 색인(General Index to Pension Files, 1861-1934) 검색도구(PDF 형식)</li> <li>• 20th-Century Veterans' Service Records Safe, Secure-and Available -Prologue Magazine 기사 원문 제공.</li> <li>• 병역기록 신청방법</li> <li>• Archives Library Information Center(ALIC)의 병역기록에 담긴 가계사 정보 CD-ROM</li> <li>• 군복무기록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목록: 온라인 검색법 안내(3가지 방법)</li> <li>• 군의 역사에 대한 NARA의 판매 출판물 리스트</li> <li>• 전쟁 사진과 이미지 안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logue Magazine 기사</li> <li>• 관련 가이드</li> <li>• 관련 특수 검색도구</li> <li>• 출판물 목록</li> <li>• 기타 웹페이지</li> </ul> |

| 항목      | 항목명            | 내 용  | 연계정보       |
|---------|----------------|--|------------|
| [링크]    | 다른 웹사이트의 병역 자료 | ALIC가 제공하는 병역기록 관련 참고 자료 링크  | 다른 웹사이트    |
|         | 소장기록 하이라이트     | 1812년 전쟁, 남북전쟁, 한국전쟁<br>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가이드 연계  | 다른 가이드     |
|         | 복무 군대          | 군대별 검색가이드 연계(공군, 육군, 해양경찰, 해병대, 해군별로 주요 기록물유형 이용법, 각각 2개에서 수십 개의 인벤토리형 검색 도구를 PDF형태로 제공)             | 다른 가이드     |
|         | 특정 전쟁에 관한 정보   | 전쟁별 검색가이드 연계<br>미국독립전쟁, 1812년 전쟁, 멕시코전쟁, 남북전쟁, 미서전쟁, 필리핀 봉기, 의화단 사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 다른 가이드     |
|         | 지주 이용되는 기록     | 일부 전쟁 가이드 연계   | 다른 가이드     |
| [이용 안내] | 아래 사항을 찾으십니까?  | - 군복무기록 신청법<br>- 퇴역군인 및 병역자 찾는 법<br>- 퇴역군인에 대한 온라인 문서<br>- 1차세계대전 이전의 병역기록 신청법                       | NARA의 웹페이지 |

<표 8> NARA 주제별 가이드 사례: '이민 기록(Immigration Records)'

| 목 차            | 하위 목차                       | 내 용  | 연계정보  |
|----------------|-----------------------------|--|---|
| 서론             | 선박승객 리스트가 계보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되나? | 제공하는 정보(국적, 출생일, 선박명, 나이, 키, 눈과 머리색, 최종 거주 장소, 미국내 친척의 이름과 주소, 가지고 온 돈의 액수 등) 안내   |   |
|                | 이민기록 찾는 법                   | 이민기록을 찾는 방법, 가능한 검색도구와 검색시스템 등을 안내(NA내부와 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 위치와 시설 (해당 웹페이지)</li> <li>• Microfilm Catalog</li> <li>• AAD Database</li> <li>• 외부 웹사이트</li> <li>• 다른 가이드</li> </ul> |
| 이민 자료로 링크      | 이민자료 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기록(선박 승객, 도착 기록, 국경 통과)에 대한 검색가이드 제공</li> <li>• 목차형의 다른 가이드(서론,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관련 서지, 편찬물, 소수민 이주자 관련) 안내</li> <li>• 기록 샘플</li> <li>• 이용가능한 이민기록: 항구별 승객 및 승무원 리스트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가이드</li> <li>• 자료신청법 (해당 웹페이지)</li> </ul>   |
|                | 이민 관련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주제별(1834-1897년의 러시아인 이민, 중국인 이민 등) 가이드, 데이터파일, 온라인 기록 등을 소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logue 기사</li> <li>• 관련 가이드</li> <li>• 관련 출판물</li> <li>• AAD 데이터파일</li> </ul>  |
| 도보라 (see also)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 기록, 거주외국인 기록</li> </ul>  | 관련 가이드  |

시스템, 관련 가이드 등과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주제 검색가이드' 메뉴에서는 찾기 어

려운 크고 작은 가이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NARA의 '주제별 검색가이드' 메뉴에 속한 가이드들의 구조는 다양해서 이것들을 모두 가이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미국의 건국 문서'는 The Carters of Freedom이라는 웹페이지로 링크되며, 바로 문서 원문을 보여주고 해설해주는 때문에 검색가이드로 보기 어려웠으며, '대통령과 유명인' 주제 아래에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실존인물 폰 트랩 가족에 대한 가이드가 있었는데 미국연방기록(입국기록 및 비자 등)이 온라인 전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예술과 문화 영역의 '예술' 분야 가이드도 매우 간략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예술' 분야는 다시 Contemporary African Art(from the Harmon Foundation), Ansel Adams Photographs, Clifford K. Berryman Political Cartoon Collection, Hepburn Rate Bill 등 4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상세 정도는 달랐지만 항목별로 컬렉션 개요에 해당하는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예술' 관련 컬렉션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규모나 항목 구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인물 하위의 계보학 주제에 대해서는 'Resources for Genealogists'란 웹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여성'이라는 하위주제에 대해서는 2건의 Prologue 기사와 여성사 사이트 링크로 간략하게 구성하고 있었다. 전쟁별 가이드들도 구조가 다양했는데, '남북전쟁' 가이드의 경우 유형 및 출처별 기록물 특징과 검색법, 관련 전시, 관련 수업자료, 원문 이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지만, '한국전쟁'의 경우 관련 기록물 기술 목록, 한국전쟁 중 간호사 사상자 기록 이용 안내, 외부 사이트

안내 등 간략한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었고 항목 구성 자체가 달랐다.

### 3.3 호주 N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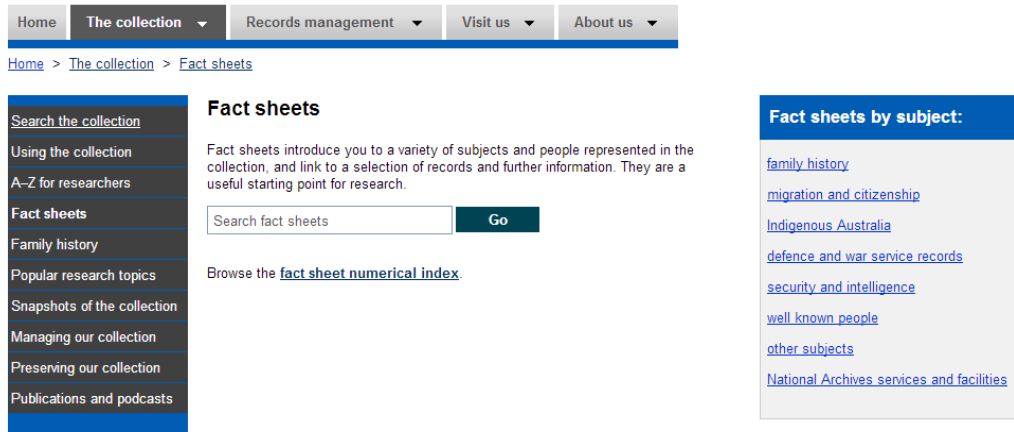
호주 NAA는 검색가이드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4종의 온라인 서비스(Fact Sheet, Research Guide, A-Z for researchers, Popular research topics)가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3.3.1 Fact Sheet

##### 1) 명칭과 접근

Fact Sheet은 기록이용에 관한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기록이용안내서'라고 볼 수 있으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Fact Sheet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Fact Sheet은 주제나 기록 유형별로 기록을 찾고 해당 기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 그러나 특정 주제나 유형의 기록물 검색을 돕는 Fact Sheet뿐만 아니라 기록관 이용법이나 시설 안내 등을 위한 Fact Sheet도 많기 때문에 Fact Sheet 전체를 기록 검색가이드로 보기는 어렵다.

Fact Sheet에 접근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그림 4>에서와 같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Fact Sheet이 검색된다. 'korea'라는 키워드로 입력하면 'Army service records-Fact sheet 136', 'National Service, 1951-59-Fact sheet 163' 등 관련 Fact Sheet 6건이 검색된다. 두 번째는 Fact Sheet 번호순으로 브라우징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화면 우측에 제시된 8개의 범주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림 4〉 NAA의 Fact Sheet 검색 화면

2) 개발 대상과 범주

〈표 9〉와 같이 8개 분야별로 270여 개 이상의 Fact Sheet이 개발되어 있어, 다양한 주제와 유형별로 기록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크고 작은 주제의 Fact Sheet들이 병렬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각 Fact Sheet들이 긴

〈표 9〉 Fact Sheet의 분야

| 분야        | 하위 분야   |
|-----------|---|
| 가족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사 기본</li> <li>관련 주제</li> </ul>   |
| 이민과 시민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장기록 개관</li> <li>국적별, 유형별 이민</li> <li>이민신청</li> <li>입국과 출국</li> <li>귀화와 시민권</li> <li>수용자, 외국인, 전쟁포로</li> </ul> |
| 호주 원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li> <li>사람과 이슈</li> <li>원주민 관련 기록의 검색과 이용</li> </ul>   |
| 국방과 전쟁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 서비스 기록</li> <li>국방 행정 기록</li> <li>민간인 복무</li> <li>사건</li> <li>포로 수용</li> <li>국가 서비스</li> <li>기타</li> </ul>  |

| 분야           | 하위 분야   |
|--------------|---|
| 안보와 첩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li> <li>전시 보안: 피수용자, 외국인, 전쟁포로</li> </ul>  |
| 유명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상</li> <li>기타</li> </ul>  |
| 기타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설계, 건설</li> <li>교육과 훈련</li> <li>정부와 정치</li> <li>선거와 투표</li> <li>보건과 검역</li> <li>국제관계와 호주 영토</li> <li>국가 상징</li> <li>왕립위원회, 위원회, 조사</li> <li>과학과 환경</li> <li>스포츠, 레저, 문화</li> <li>무역, 산업, 경제</li> <li>교통, 통신</li> </ul> |
| NAA의 서비스와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A 안내</li> <li>위치와 개관시간</li> <li>소장기록물 접근법</li> <li>컬렉션 검색</li> <li>원주민 관련 기록 접근법</li> <li>열람실 서비스</li> <li>열람부서</li> <li>검색 대행자(민간)</li> <li>다른 보존기록관 안내</li> </ul>  |

밀히 링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기록에 포함된 주제뿐 아니라 보

존기록관 시설이나 열람 안내 등의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3) 구조와 연계정보

Fact Sheet의 길이와 구성은 주제에 따라 다양했지만 검색가이드 역할에 충실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0>은 이민 기록에 대한 Fact Sheet 사례이다.

이 사례를 보면 이민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승객기록, 외국인 등록부 등 이민기록물 유형별로 다양한 Fact Sheet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따로 작성되어 연결되는 형식은 정보의 갱신과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3.3.2 책자형 검색가이드: Research Guide

NAA는 주제가 중요하면서 소장 기록물의 규모가 큰 경우 단행본 형식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가이드들은 일반 주제를 다루는 Research Guide 시리즈와 호주 수상(Prime Ministers) 아카이브 가이드 시리즈로 나눌 수 있었다. Research Guide 시리즈에는 25개의 가이드가 있는데, 이민(영국, 중국, 유태인, 어린이), 국제관계(일본,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전쟁사(HMAS Sydney, Boer War)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있었다. 시리즈의 제1권은 ‘중국인 이민자들과 NSW의 중국계 호주인들’(1997년 개정)이고 25권은 ‘호주 수도권에 대한 정부기록’(2013년 발행)에 관한 가이드이

<표 10> NAA Fact Sheet 사례: ‘이민 기록’(Fact Sheet 227)

| 항목         | 내용   | 연계정보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A가 소장한 이민 기록의 범위와 유형 소개(승객목록, 시민권기록, 외국인 등록부)</li> <li>• 이민자 선별 문서 관련 제도</li> <li>• 기록 공개 시점(연방정부 기록은 30년, 내각 회의자료는 50년 이후 공개)</li> </ul> |   |
| 승객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객기록의 범위와 특징</li> <li>• 기록에 포함된 정보 요소</li> <li>• 승객 도착 색인 이용법</li> <li>• 승객 기록 검색을 위한 fact sheet(NAA의 7개 분관별로 소장기록 안내) 링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fact sheet(캔버라분관 소장 승객기록, 퍼스분관 소장 승객기록, 시드니 소장 승객기록 등)</li> </ul>                         |
| 시민권(귀화)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이민자들의 귀화 및 시민권 취득 관련 제도</li> <li>• 기록에 포함된 정보요소</li> <li>• 4개의 관련 fact sheet 링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fact sheet(캔버라 소장 귀화 기록, 시드니 소장 이태리인 이민 관련 기록, 호주의 시민권, 퍼스에 소장된 이태리인 이민 관련 기록)</li> </ul> |
| 외국인 등록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의 외국인 등록제도</li> <li>• 기록에 포함된 정보요소</li> <li>• 11개의 관련 fact shee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개의 관련 fact sheet</li> </ul>  |
| 이민자 선별 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의 이민자 선별제도 설명</li> <li>• 이민자 선별 문서의 특징과 정보요소</li> <li>• 4개의 관련 fact shee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의 관련 fact sheet</li> </ul>   |
| 기타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밖에 이민자 관련 기록에 관한 fact sheet 설명</li> <li>• 관련 사진기록 시리즈 기술과 연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의 관련 fact sheet과 RecordSearch의 시리즈 기술</li> </ul>   |
| 기록 탐색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시스템(RecordSearch) 안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시스템(RecordSearch)</li> </ul>   |

다. 이 가이드들은 단행본 형식으로 74쪽에서 288쪽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각 가이드별로 저자를 명시하고 있었다. 판매용 책자로 발간되었지만 NAA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었다. 웹사이트에서 pdf 형식이나 전자책 형태로 제공되며, 관련된 기록물 기술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대신 시리즈 계층 정도의 기술을 모두 신고 있었고, 주요 기록물건에 대한 목록과 원문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행본 검색가이드라고 볼 수 있다.

호주 수상 아카이브에 대한 6개의 가이드들은 11명의 전직 수상 및 수상 부인에 대한 간략한 생애사와 광범위한 기록 목록을 제공한다. 가이드의 목차는 소장처별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유형이나 주제별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앞의 Research Guide와 유사했다. NAA는 이밖에도 여러 권의 단행본들을 이러한 가이드 형식으로 발간하여 기록물 발견을 지원하고 있다(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 가이드에 대한 이러한 설명도 Fact Sheet (116번)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c).

### 3.3.3 A-Z for researchers

‘A-Z for researchers’는 NAA가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도구와 다양한 정보원을 주제별로 모아 보여주는 포괄적인 가이드에 해당한다. 130여 개의 주제어를 알파벳순으로 제공하고, 각 주제어와 관련된 Fact Sheet, 책자형 검색가이드, 출판물, 교육자료, NAA 잡지 Memento, 웹사이트 정보 등을 연계하여 해당 주제어와

관련된 검색도구와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의 화면 왼쪽 메뉴에는 ‘Fact Sheet’과 함께 ‘A-Z for researchers’ 메뉴가 있고, 여기를 클릭하면 알파벳순으로 주제어를 브라우징할 수 있다.

주제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였다. 주소, 연락처, 개관시간 등과 같이 NAA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안내를 제공하는 주제어들도 있지만 유권자 명부, 승객기록, 사진, 엽서기록, 출판물 등과 같이 기록물유형, 수상 등을 역임한 특정 인물명, 이민, 보어전쟁, 호주원주민, 유대인의 호주 경험 등과 같은 주제어도 있었다(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d).

이 서비스에서는 NAA가 제공하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연결하기도 하고, Fact Sheet이나 Research Guide로 연결하기도 함으로써 Fact Sheet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Fact Sheet 검색에서 ‘Access’를 검색하면 관련 Fact Sheet만 검색되지만 여기서는 NAA의 기록 열람과 접근과 관련된 7개의 Fact Sheet뿐만 아니라 연방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한 Archives Act 1983도 안내해준다. ‘이민(immigration)’이라는 주제어를 클릭하면, 호주이민사와 이민기록에 대해 3-4줄로 요약한 후 Fact Sheet ‘이민과 시민권’, NAA의 잡지 Memento에 실린 이십 여 개의 기사, 7개의 책자형 검색가이드(Research Guides)를 볼 수 있도록 링크하고 있고, 관련 출판물 목록과 구매 사이트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Fact Sheet이나 Research Guide가 정보 자체를 제공하는 데에 비하여 ‘A-Z for researchers’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정보원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 3.3.4 인기주제별 검색가이드

‘Popular research topics’에서는 이용자가 많이 찾는 주제에 대한 검색가이드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호주 헌법과 연방제, 내각, 국방, 이민과 시민권, 보안과 첩보라는 5가지 주제에 대한 검색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림 4>의 화면 왼쪽 메뉴에는 Fact Sheet, ‘A-Z for researchers’와 함께 ‘Popular research topics’도 노출되어 있다. 이를 클릭하면 각 가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는 다양한 검색도구와 안내서, 기록자원을 연계해주는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영국 TNA의 검색가이드와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민과 시민권’ Fact Sheet은 관련된 수십 개의 Fact Sheet을

연결해주는 데에서 그치고 있으나, 동일 주제에 대한 ‘인기주제별 검색가이드’는 <표 11>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b).

이 서비스도 주제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록에 대한 설명과 이용법, 각 유형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요소, 생산기관에 대한 설명 등 기록을 찾고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 3.4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주제별로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주제별 콘텐츠’이다. 또한 특정 주제나 토픽에 따라 기록

<표 11> 인기주제별 검색가이드 사례: ‘이민과 시민권(Migration and Citizenship)’

| 항목                    | 내용  | 연계정보  |
|-----------------------|---|---|
| [개요]                  | 호주 이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기록의 중요성<br>(17만 명 이민자들의 개인별 문서철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 -   |
| 이민과 시민권에 관한 기록        | NAA가 소장한 기록 유형: 외국인(비 시민권자) 등록, 이민 신청서, 케이스 파일, 이민자 선별 문서, 이민자 적응 기록, 귀화(시민권) 기록, 승객 기록, 여권기록, 정책파일, 비자와 입국/출국 문서 | -   |
|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보      | 위의 기록에 포함된 정보요소 및 주요 내용   | -   |
| 행정사                   | 호주 이민제도사 약술<br>이민정책 담당 부처(기록생산조직)을 시기별로 안내  | 정부부처(생산자)기술   |
| 이민기록 찾는 법             | NAA의 기록검색시스템 RecordSearch, NameSearch 및 초보 이용자를 위한 단계별 설명자료와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cordSearch 검색창</li> <li>NameSearch 검색창</li> <li>Step-by-step guide for researchers</li> </ul>                    |
| Making Australia Home | 이민기록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Making Australia Home - migration records online’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을 알림                             | -   |
| 자료                    | Fact Sheet(‘이민과 시민권’ 분야), Research Guide 11개, 웹사이트 4건, 단행본 2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과 시민권’ 분야 및 하위 분야별 Fact Sheet</li> <li>Research Guides</li> <li>Websites</li> <li>Bookshop 웹페이지(NAA)</li> </ul> |

을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작한 '기록정보 콘텐츠'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기록정보 콘텐츠'의 경우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개발된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주제나 토픽별로 기록을 발견하고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색가이드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3.4.1 주제별 콘텐츠

#### 1) 명칭과 접근

국가기록원 검색시스템에서는 기술계층별, 주제별, 생산기관별로 기록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중 주제별 검색은 기록을 출처가 아니라 국정분야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주제별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주제별 콘텐츠'는 검색가이드에 가장 근접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수년에 걸쳐 6천 개에 달하는 '주제별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초기 화면에서 주제별 검색을 클릭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로 주제콘텐츠가 계층적으로 분류

되어 있어서 찾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주제유형별로 콘텐츠를 브라우징하거나 키워드검색을 할 수도 있다. 콘텐츠란 용어가 다소 애매하지만 명칭도 비교적 분명하고 접근성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 2) 개발 대상과 범주

'주제별 콘텐츠'는 국정분야를 국방, 외교, 통일 등 28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개 유형(정책/제도, 사업, 역사적 사건, 인물, 조직/기구, 사건/사고, 조약·회담, 회의, 행사·이벤트, 기타)으로 구분하여 국가기록원 소장기록을 '다원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국가기록원, 2008). <표 12>는 2015년 2월 현재 주제별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주제별 콘텐츠'의 분야와 숫자이다. 2008년에 5,669건이 서비스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관련 기록물 없이 주제 해설만 있던 500여 개의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이며 2014년부터 기록물 추가 발굴과 연계를 실시하여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신

<표 12> 국가기록원 '주제별 콘텐츠'의 분야별 구축 규모

| 국정분야      | 규모  | 국정분야       | 규모  | 국정분야      | 규모    |
|-----------|-----|------------|-----|-----------|-------|
| 공공질서      | 200 | 법무/법제      | 150 | 재정/금융     | 235   |
| 과학기술      | 239 | 보건         | 236 | 정보통신      | 198   |
| 교육        | 215 | 보육/가족/여성   | 108 | 조달 및 물자관리 | 93    |
| 국가보훈      | 103 | 사회복지       | 186 | 지방행정      | 231   |
| 국무조정      | 213 | 산업/중소기업    | 239 | 통계        | 144   |
| 국방/병무     | 214 | 수송및교통      | 131 | 통상        | 197   |
| 국토 및 지역개발 | 181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130 | 통일        | 82    |
| 노동        | 118 | 외교         | 413 | 환경        | 226   |
| 농림해양수산    | 370 | 인사/조직      | 201 | 총계        | 5,448 |
| 문화체육관광    | 253 | 재난방재       | 142 |           |       |

자료: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2015).

규 주제콘텐츠 400여 개를 개발하고 기존 콘텐츠의 내용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2015).

국정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규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러나 정부기능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집필자가 하위 주제를 잡아서 집필하였기 때문에 기록의 유형별 특징이나 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콘텐츠는 없었다. 또한 서비스되는 콘텐츠의 규모는 분야별로 균형이 있었지만, 주제 유형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획에서부터 유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집필이 이루어진 후에 유형 분류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인물별 주제콘텐츠는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유형분류에서도 빠져 있었다. 집필된 인물콘텐츠의 숫자가 적고, 인물의 선정은 물론 해설내용에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큰 영역이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장기록의 이용과 이해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개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 중요성에 따라 대상을 미리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의 접근방법은 앞의 세 나라와는 기본적으로 달랐다.

### 3) 구조와 연계정보

‘주제별 콘텐츠’는 주제설명과 기록물로 구성된다. 주제설명은 근거, 배경, 내용, 참고자료, 집필자, 최초 집필일, 최종 수정일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길이는 원고지 10쪽 이상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다. 기록물에는 기록물유형별(일반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정부간행물 등)로 나누어 철, 건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

가 주제에 대한 설명글(주제설명)을 집필하고 집필이 끝난 후 국가기록원 직원이 기록물을 검색하여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제해설과 기록과의 연계를 설명하는 부분은 없었다. 주제해설과 기록이 분리되어 있어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해양주권 수호’ 콘텐츠에는 해양경찰백서 2005, 해양경찰백서 2003, 법제(1997. 6) 등의 기록(정부간행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백서와 법제의 어느 부분이 해양주권 수호와 관련 있는지 애매하였다(설문원, 2012). 또한 기록물철과 건 목록 외에 다른 연계정보가 없었고 철 목록은 상위계층의 기술과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 3.4.2 ‘기록정보콘텐츠’

#### 1) 명칭과 접근

앞서 설명한 ‘주제별 콘텐츠’도 처음에는 ‘기록정보콘텐츠’란 이름으로 불렸으나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콘텐츠’를 “사회적 관심이나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물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특성, 주제, 시대 등에 따라 묶어서 정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5).

또한 ‘기록정보콘텐츠’의 종류를 △주제 콘텐츠(특정 주제를 다룬 기록콘텐츠), △시대·생활 콘텐츠(시대와 생활상에 관한 기록콘텐츠), △교육 콘텐츠(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록콘텐츠), △전문 콘텐츠(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제공되는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교육 콘텐츠는 목적이 분명한 콘텐츠로서 검색가이드와 가장 거리가 멀고, 나머지 유형의 콘텐츠들은 대체로 검색가이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서 '기록정보콘텐츠' 메뉴를 클릭하면 접근할 수 있으며, 콘텐츠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키워드를 통한 콘텐츠 검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통합검색에서 '독립운동 판결문'을 검색하면 기록물철 4건, 기록물건 18건, '기록정보콘텐츠' 3건, 웹페이지 5건을 찾을 수 있었다(2015. 1. 15 현재). 기록이나 정보 목록에 해당 키워드가 등장하는 경우에만 검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독립운동 판결 관련 기록은 판결문(19,279건), 형사사건부(11,890건), 집행원부(10,706건), 수형인명부(22,144) 등 모두 2만 4,000건에 달한다(국가기록원, 2015b). 독립운동 판결과 관련된 이러한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특수 검색도구는 '독립운동 판결문' 콘텐츠이며, 위 통계는 이 콘텐츠에서 확인한 것이다. 또한 통합검색에서 '독립운동'을 검색하여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 콘텐츠는 검색되지 않았다.

2) 개발 대상과 범주

'기록정보콘텐츠'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선정된 주제 및 예산 범위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표 13>은 수많은 콘텐츠가 개발된 이후 사후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이 중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경우 총 2,719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해설과 관련 기록물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서와 콘텐츠와의 연계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주제별 콘텐츠'가 국가정책상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면 여기서는 패션쇼, 대중상영화제, 담배

<표 13>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현황

| 유형            | 콘텐츠 제목  |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고속도로 건설</li> <li>•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li> <li>• 국제 스포츠 대회</li> <li>• 금기와 자율</li> <li>•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li> <li>•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li> <li>• 다시보는 2002 FIFA 월드컵</li> <li>•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1, 2, 3, 4.</li> <li>• 산림녹화</li> <li>• 산업단지 개발</li> <li>• 새마을운동</li> <li>• 식량증산</li> <li>• 원자력 진흥정책</li> <li>• 인구정책</li> <li>• 재외 한인의 역사</li> <li>• 한국과 유엔</li> <li>• 5.18 민주화 운동</li> <li>• 6.25 전쟁</li> <li>• OECD 가입</li> </ul> |
| 시대<br>·<br>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일과 기록</li> <li>•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li> <li>•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li> <li>• 사진 대한민국</li> <li>• 연표와 기록</li> <li>• 오늘의 기록</li> <li>• 이달의 기록</li> <li>• 함께 만드는 기록세상</li> </ul>   |
| 전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보</li> <li>• 국무회의기록</li> <li>• 내 고장 역사 찾기</li> <li>• 내 고향 역사 알기</li> <li>• 독립운동관련판결문</li> <li>•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li> <li>•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li> <li>• 정책정보</li> <li>• 조선총독부기록물</li> <li>• 지적아카이브</li> <li>• 참여정부 정책간행물</li> </ul>  |

자료: 국가기록원 (2015).

등 생활밀착형이면서 '작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1, 2,

3, 4' 등의 일부 콘텐츠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기록뿐 아니라 외부 정보원, 참고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가이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제콘텐츠의 상당수는 관련 주제 해설과 관련 기록을 보여줌으로써 '온라인 전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과 'OECD 가입'은 '주제별 콘텐츠' 중 일부를 연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전문 콘텐츠는 대체로 특별한 색인 DB를 기반으로 개발된 특수 검색도구들이다. 관보, 국무회의록, 조선총독부의 부·군·면 폐합 문서철(내 고장 역사 찾기), 지방 소재 민간기록물(내 고향 역사 알기),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일제시기 건축도면, 정부간행물(정책정보, 참여정부 정책간행물), 조선총독부 기록, 토지 관련 기록(지적아카이브) 등과 같이 각 기록유형에 적합한 색인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관련 기록과 생산맥락을 설명하고 있다.

### 3) 구조와 연계정보

각 콘텐츠는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었으며, 각기 다른 외부기관이 개발한 경우가 많아 인터페이스, 구성 항목, 디자인이 모두 달랐다.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가장 문제는 기록과 기술 간에 정확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주제해설, 관련 기록, 관련 기록 해설로 구성되는 기록정보콘텐츠에 주제와 기록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령 '새마을운동 콘텐츠'에서 그 기록이 왜 선택되었으며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며, 기술목록과의 연계도 없었다.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2014)는 국가기록원의 사건 관련 기록콘텐츠를 분석하면서 주제기술과 함께 제시되는 기록은 대부분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인데도 기록물 기술(목록)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기술과의 연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제와 기록, 기술 간의 관계를 해설하는 정보가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로였다.

정보 간 연계가 부족한 것은 국가기록원 검색서비스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기록원은 기술계층별, 주제별, 생산기관별 검색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계층별 기술의 경우 건이나 철 목록 위주이고 집합적 기술의 완성도가 낮은 편이며, 철 목록이 상위 계층의 기술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기관별 검색의 경우 기관별로 기록물건과 철 목록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목록 숫자가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검색을 상위계층으로 제한할 수가 없었다. 주제별 검색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 4. 종합 분석과 시사점

### 4.1 분석 기준

검색가이드를 설계하는 데에 참고가 될 모범 사례를 찾기 위하여 각 사례들을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표 14〉 참조).

〈표 14〉 기록 검색가이드의 평가 기준

| 기준  | 세부 기준   |
|-----|---|
|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구의 특성을 드러내는 분명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가?</li> <li>• 가이드에 접근하기 용이한가?</li> </ul>      |
| 포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가이드들이 개발되었는가?</li> <li>• 상당한 수의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는가?</li> </ul>    |
| 체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절한가?</li> </ul>                                     |
| 일관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가이드들의 구조에 일관성이 있는가?</li> </ul>   |
| 연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되는 정보원이 다양하고 연계방식이 편리한가?</li> <li>• 관계를 설명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가?</li> </ul> |

첫째는 접근성이다. 접근성은 이용자가 검색 가이드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는지,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가이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기준이다. 도구의 용도를 알 수 있는 분명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지, 가이드 메뉴의 화면배치와 몇 번 클릭해야 가이드에 접근할 수 있는지, 가이드 검색이 쉽고 정확한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둘째는 포괄성이다. 가이드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는 제공하는 검색가이드의 규모와 분류체계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셋째는 체계성이다. 가이드의 구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절한지 여부이다. 기록의 발견과 이용을 돕는 데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넷째는 일관성이다. 각 가이드들이 어느 정도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가이드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

는 정보를 예측하고, 한두 번의 이용경험으로도 이용법을 익힐 수 있으려면 일관성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연계성이다. 연계되는 정보원이 다양한지, 연계방식은 편리한지를 확인하는 속성이다. 또한 연계되는 기록 정보와 주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4.2 접근성

조사결과 영국 TNA의 Research Guides, 미국 NARA의 Research by Topic, 호주 NAA의 Fact Sheet과 Research Guide, A to Z for Researchers, Popular Research Topics,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주제별 콘텐츠'와 일부 '기록정보콘텐츠'가 검색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NA의 경우 분명하고 도구의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록 검색 첫 화면에 전면 배치되어 있고, 검색의 특성에 따라 범주(장소, 인물, 주제)를 구분하여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주제어별로 검색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는 Research Guides A-Z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가이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NARA 역시 명칭은 도구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했으나, 정형화된 서비스라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기록 검색의 첫 화면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은 좋은 편이었다. 또한 8개 분야 및 세부분야별로 가이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었으나, 사례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주제별 가이드들이 이

메뉴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접근의 포괄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NAA의 경우 4종의 도구가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각 도구의 명칭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특히 Fact Sheet, Research Guide, A-Z for Researchers' Guide가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러웠다. Fact Sheet, A-Z for Researchers' Guide, Popular Research Topics 메뉴는 기록 검색 첫 화면의 왼쪽에 배치되어 비교적 접근성은 우수했으나 Research Guide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서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Fact Sheet은 분야별 검색과 키워드 검색, 번호별 브라우징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공하여 찾기가 매우 편리하였다. A-Z for researchers도 알파벳순 브라우징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Popular research topics의 경우 숫자가 적어서 첫 화면에서 바로 원하는 가이드를 찾을 수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주제별 콘텐츠'와 '기록정보콘텐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은 이 도구의 용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제별 콘텐츠'와 '기록정보콘텐츠'를 구분하기도 어려웠고, '콘텐츠'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러한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었다. 특수 검색도구인지, 가이드인지 등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명명법이 필요하며, 그 전에 수요자 관점에서 이러한 도구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주제별 콘텐츠'의 경우 계층적 분류가 이루어져 있어서 브라우징이 편리하였으나 'OECD 가입'이 노동의 하위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등 부적합한 분류도 있었다. '기록정보콘텐츠'의 경

우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별 메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유형 구분이 다소 애매하고, 통합검색에서 각 콘텐츠가 정확하게 검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 4.3 포괄성

TNA는 장소, 인물,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가이드를 290개 정도 제공하고 있었다. 가이드 개발 대상은 기록 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한 검색도구나 검색시스템이 존재하고, 많이 찾는 주제의 기록이 다양한 출처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NARA는 TNA에 비해 분야도 협소하고 숫자가 적었다. 메뉴에 나타나는 가이드 수는 적었으나 그 아래 하위 가이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메뉴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가이드들을 검색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00개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인물과 지역, 문화, 복지 등의 주제를 다루는 가이드가 없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NAA의 Fact Sheet은 다루는 분야가 광범위한 편이었고, Fact Sheet보다 상위의 가이드로 볼 수 있는 A-Z for Researchers' Guide도 넓은 분야의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영국의 Research Guide A-Z가 가이드를 쉽게 검색하기 위한 도구인데 비하여 호주의 A-Z for Researchers' Guide는 Fact Sheet은 물론 다양한 정보자원을 연계하고 모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달랐다. 호주의 Research Guide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

에 제한된 주제만을 다루고 있었으며 개발된 수도 많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의 '주제별 콘텐츠'는 6천 개에 달할 정도로 많고 범위도 넓었다. 또한 '기록정보 콘텐츠' 중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역시 매우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주제별 콘텐츠'의 경우 '기록'보다는 '주제'중심으로 개발되어 주제 해설은 있는데 관련 기록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문제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보존기록관은 소장기록물의 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 콘텐츠'의 경우 특수 검색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러한 특수 검색도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4.4 체계성과 일관성

체계성과 일관성은 가이드의 구조와 관련된 측면들이다. TNA의 가이드는 기록을 검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용자가 검색 전에 확인해야 하는 정보, 어떤 검색도구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기록유형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TNA 외부의 검색시스템과 웹사이트도 안내해 준다. 기록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항목으로 기록 개요와 맥락정보(온라인형), 핵심정보(목차형)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TNA 검색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일관성이었는데, 가이드들이 대체로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가이드들이 거

의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는다면 이용자는 주제가 달라도 가이드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줄지 예측할 수 있고, 한두 번 사용하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NARA의 경우 가이드마다 구조가 달랐다. '전쟁과 병역기록'과 같이 큰 주제의 가이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가이드는 작은 온라인 전시콘텐츠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NARA 가이드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NARA가 '검색가이드'라는 도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NAA는 Fact Sheet, A-Z for Researchers' Guide, Popular Research Topics, Research Guide가 모두 역할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Fact Sheet과 A-Z for Researchers' Guide는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영국의 검색가이드가 Fact Sheet과 A-Z for Researchers' Guide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고, 가이드를 쉽게 찾기 위한 도구를 따로 제공한다는 점과 비교되었다. 각 검색가이드별로는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Fact Sheet나 Popular Research Topics의 가이드 구성요소가 다른 점은 아쉬웠다. Popular Research Topics는 Fact Sheet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도 생산기관 설명이 상세한 것이 특징이었다.

국가기록원의 '주제별 콘텐츠'는 구조의 일관성이 매우 높았으나 앞에서 밝혔듯이 검색가이드에 적합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록정보콘텐츠'는 각 콘텐츠마다 달랐지만, 기록과 주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대체로 미흡하고 기록물 정보를 충분

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기록정보콘텐츠’의 경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디자인과 내용 요소들이 너무 다양해서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될 경우 이용은 물론 갱신이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4.5 연계성

TNA의 경우 연계정보의 유형은 특수 검색 도구, 관련 가이드, 기록물 기술, TNA 사이트의 다른 웹페이지, 외부 검색시스템과 웹사이트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은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특수 검색도구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경우 인명 등과 같은 색인어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공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이드 주제와 관련하여 관련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각 기록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제와 기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NARA의 경우 다른 가이드, NARA의 다른 웹페이지, Search Online이나 AAD 등의 NARA 검색시스템, 외부 웹사이트등과 연계하는 것은 TNA와 유사했으나 NARA의 기관지 기사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이했다. *Prologue Magazine*이 NARA 소장 기록물에 대한 가이드 기사를 꾸준히 싣고 있기 때문이다. 연계방식은 해당 웹페이지로의 링크, PDF 형식 기사 제공 등이었다. NARA 가이드에는 기록과 주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쟁과 병역 기록” 가이드의 “병역 기록이 가계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항목과 같이 그 기록이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싣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NAA의 Fact Sheet은 주로 관련 Fact Sheet을 연계하고 있다. A-Z for Researchers’ Guide는 Fact Sheet, Research Guide, 출판물, 교육자료, NAA 잡지 Memento, 웹사이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전자책 형태로 제공되는 Research Guide는 관련 정보와의 링크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지만, Popular Research Topics는 RecordSearch와 NameSearch 검색창, Fact Sheet, NAA의 다른 웹페이지, 외부 웹사이트 등과 연계하고 있었다. 연계방식은 링크를 통한 해당 웹페이지로의 이동, 검색창 제공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Fact Sheet와 Popular Research Topics는 서두에 주제와 기록의 관계 및 의미를 해설하는 내용을 싣고 있고 Research Guide 역시 주제와 기록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 ‘주제별 콘텐츠’에서는 기록물철 목록을 제공하고, 철 목록과 건 목록을 연계하고 있으며, 건 목록에 디지털 원문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록정보콘텐츠’의 경우 건 목록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기술목록과는 별개로 기록물건에 대한 상세 목록을 만들어 제공하고 스캐닝한 기록 원문을 해당 콘텐츠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성이 매우 취약했다. 특히 주제와 기록의 관계와 기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4.6 시사점

국가기록원 등의 대규모 보존기록관이 검색 가이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가이드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장기적인 기획에 따라 개발해 나가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보존기록관이 제공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로서 검색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검색가이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전략을 가지고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정보콘텐츠'라는 용어가 남용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용어를 두루두루 사용할 경우 그 콘텐츠가 어떤 목적과 역할을 갖는지 개발자도, 이용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역할과 기능에 따라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 해설이 아니라 기록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에서 국가기록원과 같이 주제 해설이 과다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국가기록원은 역사편찬기관이 아니다. 주제에 대한 과도한 기술을 지양하고, 기록물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맹목적인 맥락 기술(blind description of context)'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셋째, 검색가이드의 구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는 달라도 유사한 구조의 가이드들을 만드는 것과 같이 가급적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검색가이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더 많은 특수 검색도구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일부 기록물유형을 위하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특수 검색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계층적·집합적인 기술의 정비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절한 검색도구 없이 검색가이드만으로 검색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이드의 핵심 기능은 연계라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기록물철이나 건 목록뿐 아니라 계층적 기술, 기관 내외의 웹 자원, 출판정보 등과 연계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검색창을 직접 제공하는 등 편리한 연계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 가이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선택된 기록의 의미를 설명하는 연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와 같이 기계적으로 기록물 목록을 붙여놓은 사례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 그 기록이 왜 이 주제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지, 그 기록이 해당 분야 연구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연계는 매우 지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일은 외부의 정보업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반드시 아키비스트가 해야 하는 작업이다.

## 5. 맺음말

국가기록원의 검색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국제표준에 맞게 계층적 기술의 질을 높이고 기술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이나 신분 보장을 위한 증빙 문서의 발견, 교육과 연구, 보도, 취미활동

을 위한 광범위한 정보 탐색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계층적 기술만으로 원하는 기록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기록유형에 맞는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주제요구에 맞게 기록의 발견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자원들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검색서비스에서 정보 간 연결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기록 검색서비스에서 연결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연결을 넘어 보다 지적인 연결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과 기술, 검색도구, 각종 내외 정보원을 연계하는 기능을 가진 검색가이드에 주목하였다.

전문적인 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이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화두도 '연결'이다. 공개 재분류를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작성한 기록 유형별 기술서와 건별 검토서가 온라인 기술목록과 연계되고 있

지 않고 기록정보콘텐츠에 포함된 수많은 디지털 기록도 기술목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소중한 정보자원이 일부 관리자만 볼 수 있는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다면 이제라도 이러한 자원이 활발히 활용되도록 온라인 검색가이드와 같은 메타 검색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서비스 정책의 강화와 인력배치일 것이다. 북미 대학도서관에서 연구가이드가 활발하게 운용되게 만드는 동인은 전문직(주제전문사서)의 배치였다(최상희, 2010). 국가기록원은 계층적 기술업무, 특수 검색도구와 검색가이드 개발에 기록연구 및 학예연구 전문직을 중점 배치해야 한다. 전문직의 지적인 개입 없이 선진적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콘텐츠' 집필 방식은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수정 (2012).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4), 165-189.
- 노영희, 박양하 (2014). 정책분야 주제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63-92.
- 설문원 (2010).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3-43.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17-342.
-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7-36.
- 이미화 (2010). 강의별 학술정보페이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137-163.
- 이윤령, 이해영 (2014). 온라인 검색도구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기록관 검색도구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75-100.

- 일본도서관정보학회 용어사전편집위원회 (2011). 문헌정보학 용어 사전. (오동근 역). 대구: 태일사.
- 최상희 (2010).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229-248.
- Mil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발행년 1990).
- Morbille, Peter (2006). 검색2.0 : 발견의 진화. (YUNA 옮김). 서울: 한빛미디어. (원전 발행년: 2005).
- Pearce-Moses, Richard (2005). A Glossary of Archives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Tchangalova, N. & Feigley, A. (2008). Subject guides: Putting a new spin on an old concept. Electric Journal of Academic and Special Librarianship, 9(3), Retrieved November 17, 2013 (김수정, 2012, p. 166에서 재인용).

#### [웹사이트 및 문서]

- 국가기록원 (2008). 나라기록포털 주제 콘텐츠 구축 추진현황. 2008. 10. [국가기록원 내부자료]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2015).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기록물 연계 확대 추진 결과. 2015. 2. 2. [국가기록원 내부자료]
- 국가기록원 (2015a). 기록정보콘텐츠란? 검색일자: 2015. 1. 15.  
<http://www.archives.go.kr/next/theme/contentsOutline.do>.
- 국가기록원 (2015b). 독립운동관결문. 검색일자: 2015. 1. 15.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troduction3.do>.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5a). Research a Specific Topic. Retrieved January 15, 2015. from <http://www.archives.gov/research/topics/>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5b). Wars and Military Records. Retrieved January 15, 2015. from <http://www.archives.gov/research/military/>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a). Fact sheets. cited 2015. 1. 15. Retrieved January 15, 2015. from <http://naa.gov.au/collection/fact-sheets/index.aspx>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b). Popular research topics: Migration and citizenship. Retrieved January 15, 2015. from <http://naa.gov.au/collection/explore/migration/index.aspx>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c). Guides to the collection - Fact sheet 116. Retrieved January 15, 2015. from <http://naa.gov.au/collection/publications/guides/index.aspx>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5d). A-Z for researchers. Retrieved January 15, 2015. from <http://www.naa.gov.au/collection/a-z/index.aspx>
- The National Archives (2015a). Find research guide. Retrieved January 15, 2015. from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

The National Archives (2015b). Looking for subject. Retrieved January 15, 2015. from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looking-for-subjec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Sanghee (2010). Analysis on online research guides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229-248.
- Japanese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1).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ctionary*. (Oh, Dong-Geun, Tran). Daegu: Taeil.
- Kim, Soojung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online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4), 165-189.
- Lee, Mee-Hwa (2010).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library course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137-163.
- Lee, Yoon-Ryeong & Rieh, Hae-Young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online finding aids: based on the assessment of nation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1), 75-100.
- Miller, Fredric M. (2002).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ranslated by Cho Kyeong-Gu. Seoul: Jinri-Tam-gu. (Original version published in 1990)
- Morbille, Peter (2006). *Ambient Findability*. translated by YUNA. Seoul: Hanbit Media. (Original version published in 2005).
- Noh, Younghee & Park, Yang-Ha (2014). A study on developing the policy area subject guid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63-92.
- Seol, Moon Won (2010). A study on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archival finding ai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3-43.
- Seol, Moon Won (2012). Directions of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for documenting loca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317-342.
- Seol, Moon Won, Choi, Yi-Lang, & Kim Seul-Gi (2014).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es using open source software to document Mi-ryang Transmission Towers Construction confli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7-36.

